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출신원의 대행스님께 어췌어 응대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등록일: 편집자) • 본보: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삼천대천세계 보배 내 한마음에 있어

여러분을 동참시켜 이 마음공부를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년을 불상도 때려부치 보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 없이, 그런 집념 없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생활과 모든 인류와 우주를 전체 이끌어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말하면 '뭘, 그거 그냥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이고 실천하는 현실세계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합니다.

생 사에 관한 건도,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한다면 여러분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요. 그러나 벌레가 겁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화(化)하고 이력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겁데기를 벗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닙니다. 약이면 약대로 선이면 선대로 다시 돌아오죠. 그런데 그 선과 악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고 법신이 되고 보신(報身)이 되고, 보신으로서 화해서 응신(應身)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입니다.

한 찰나에 들고 나는 법

그래서 나는 방편이라고 했을 때 방편 아닌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해탈문 아닌 해탈문이라고요. 이게 해탈문이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떠나서 그 속에서 알짜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문을 찾아서 공부할 때 그 공부는 영원히 못할 겁니다. 마음은 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문도 또한 체가 없어서 못장도 벽도, 멀고 가까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게 없이 한 생각이면 한 찰나에 들고 나죠. 내가 이런 말을 잘하죠. 빛보다 더 빠르다고. 그렇게 해서 한 찰나에 모두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화(化)하게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하게 할 수 있고, 같이 접근할 수 있고, 둘 아니게 할 수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 날까지 사람으로 화해서 살아온 의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벗어나서 자유권을 얻을 수 있어야만이 남도 자유권을 얻게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생에 관한 건이, 물에서나 들에서나 공중에서나 이 지상에서나 모두, 생명들이라 하면 다 그대로 뭔가 살면서 경험하고, 그 경험한 대로 진화가 되고, 진화가 된 반면에 또 바뀌고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복되면서 몸 심은 데 콩나고 팔 심은 데 팥 나듯이 돌아가는데 우리가 거기서 뛰쳐나오지 못한다면 몸

은 콩이지 뭐 팔이 될 수는 없어요. 생각하면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죠.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실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요즈음 죽는 사람들도 많고, 지나가던 벌레가 죽기도 하고, 지나가는 구렁이가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벌 하나만 인간 환투를 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백날을 사람의 행동을 봐야 하고, 소상히 사람과 같이 습득을 해야 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람이 먹는 간장을 다 삼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서 자기 몸을 벗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바로 인간과 맞

고 생활하는 그 용(用)을 말하는 거지, 즉 태몽을 꾸었다 하면 액면 그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니까, 그래서 태몽을 꾸는 어머니의 생각 자체가 크나 작으나에 따라서 그 어린애가 나와서 진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오는 것만이 아니라, 와서 한생각에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용(龍)이다 하면 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용이다 하면 뭉치 큰 자손이 된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용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아주 활력적인 생활을 하던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인간 사이에 빛이 되게끔 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될 겁니다. 우리가 소나 돼지를 봤다고 해서 그냥 액면 그대로 돼지다, 소다, 이리저리 마시란 얘깁니다. 소가 보였다 하면, 남한테 인정을 베풀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모두 남을 주었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봤다 할지라도 그걸 액면 그대로 보지 마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춥고 배고프고 괴롭더라도 내탓이려니 하고 참고 견디며 마음의 근본을 잃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얻고도 남음이 있지요

대면해서 자꾸자꾸 접하거나 그 생각 자체가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인간과 같은 의식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기 몸을 벗고서 인간 환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몽을 꾸면은 뭐 토끼를 봤다는 등, 개를 봤다는 등, 돼지를 봤다는 등, 구렁이를 봤다는 등, 소를 봤다는 등, 인간을 봤다는 등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꽃나무를 봤다든가, 또는 배나무를 봤다든가 하는데, 배나무나 꽃나무나 이런 것은 육식 동물로서 생활을 하지 않은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육식 동물로 생활을 하지 않고 채식하고 살던 그런 영혼은 꽃이나 과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렁이는 무슨 뜻이냐? 구렁이는 우리가 경상시에 자고 깨고 먹

영혼은 아주 슬픈 영혼도 있고 즐거운 영혼도 있고, 아픈 영혼도 있고 애달픈 영혼도 있고, 그 영혼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 영혼의 눈을 보려면 그냥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쁜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나쁜 생명들이 어땠겠습니까? 살다가 보려면... 허허, 문득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장희빈이 악하다고 했는데, 악하게 만들어서 악하게 모두 당했던 말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당한 놈도 없고 준 놈도 없이 그냥 그냥 서로가 다 나빠진 거죠. 애당초부터 나쁜 사람이 없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배고프고 춥고 그



그림 · 최주현

렇다 하더라도 마음만은, 마음의 근본만은 지켜라. 인간의 진짜 진실한 마음을 상실치 말아 다오. 그것을 상실하면은 세세생생에 구르면서 조금도 벗어날 길이 없다. 어둡고 괴롭고 고가 많고 슬프더라도 모두가 내 탓이려니 하고 모두 참고 견디고 그 아리따운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이 우주를 다 얻고도 남음이 있느니라.' 하는 거죠.

근본을 믿으면 자유인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막힐 데가 없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모두가 실질적인 내 마음의 행동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니까요. 영무새와 같이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 몸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내 영혼, 그 자체의 진실한 근본을 진짜로 믿고 나간다면 바로 자유인이지요. 알고 보면 서로가 똑같은 지경입니다. 부처님이 위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떠한 뜻에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버지이고 어머니라고 해서 위대하기만 합니까? 절레처럼 뛰어 주고 뛰어 주고, 내 몸은 더럽더라도 내 몸은 깨끗해라 하고 그냥 뛰어 주고 하는 그런 길잡이와 같이, 즉 말하자면 부처님 같은 마음이지, 허허허... 그러니 부처님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자식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나, 나를 다 주고 회생해 가면서 자식을 낳아서 내 몸을 자식한테 다 맡겨서 먹고 자라라고 다 주는 그런 어머니, 그런 아버지! 하늘과 땅이 아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둘이 아닌 까닭에 그 가운데서 자손이 낳다 할지라도, 그 자손을 크게 이루려면, 또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들을 크게 한 도량에 건지시려면 내가 첫째, 한마음으로 구성된 그 마음이 스스로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서 다복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대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만 배우고 웃고 즐기고 이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한테 말하기를 "마음은 체가 없어서 모두가 자식이다 부모다 또는 나다 형제다 하는 가설이 다 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가설이다."고 했습니다. 한 25년 전... 그렇게 아마 될는지, 한 30년은 못 됐죠. 어느 어려운 과수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쐬려 나간다고 나가다 보니까 그 과수원까지 이렇게 훌쩍 왔어요. 그래 그 과수원 집에서

나를 해서 밥을 얻어먹고 이려고 돌아 보니까, "스님!" 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이게 3년을 내리두고, 해마다 꼭 요만큼씩하게 사과가 열려서 지금 학교에 등록금도 못 내고 우리 식구가 다,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셨죠? 인간들 사는 것에만 급급해 하지, 일체 동물, 일체 생물이라고 합시다. 그 모두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들과 그 생활이 같은지, 그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셨죠? 그런데 가서 보는 순간, 모두 꽃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꽃같이, 꽃 같은 마음, 그 불꽃 같은 마음이 말입니다. 불꽃 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니만 여기 저기 저기 사방에 다 구름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두 한마음으로 그 불꽃 같이 그냥 연기처럼 아주 자욱하게 모이는 겁니다.

선과 악을 모두 놓아라

그래 나는 즐거워서 두리번 두리번하고 쳐다보고 있노라니까 아, 옆에서는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나무와 사과나무끼리, 개리끼리 모두 모여서 애당초에 사과나무가 자기 이전부터 있던 그 마을들이 불꽃같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과가 많이 열릴 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해에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렸으면서도 사과 하나가 이만큼씩 하게 크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빛을 다 잡았다 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먼 데를, 그 첫번째 관 거를 조금 넣어 가지고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 토끼를 가져왔습디다. 그래 가져온 거를 큰 질로 가지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느껴지고, 들으면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 아닙니까? 알아지는 그 생활 자체가 그대로 여하면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믿고 여하면요. 그런데 글로 본다면 아예 한마음으로 그냥 하면은 그 세계가, 세계! 허허, 삼세계(三世界)가 바로 그 삼보(三寶)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삼세계가 삼보가 되는 것입니다. 삼보가 한데 합쳐서 일심(一心)이 되는 것입니다. '삼보'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데 합친 것이 삼보입니다. 그래서 일심으로써 꼭 알아야 될 것은 '큰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보배가 바로 나한테 있다. 그래서 삼보가 내 마음 속에 있으니 부처님과 일체 만물만 생이 어찌 따로 떨어져 있으랴. 한 도량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여러분의 육신, 육바라밀이라고 해도 됩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에 관한 건을 모두가 따로따로 할

1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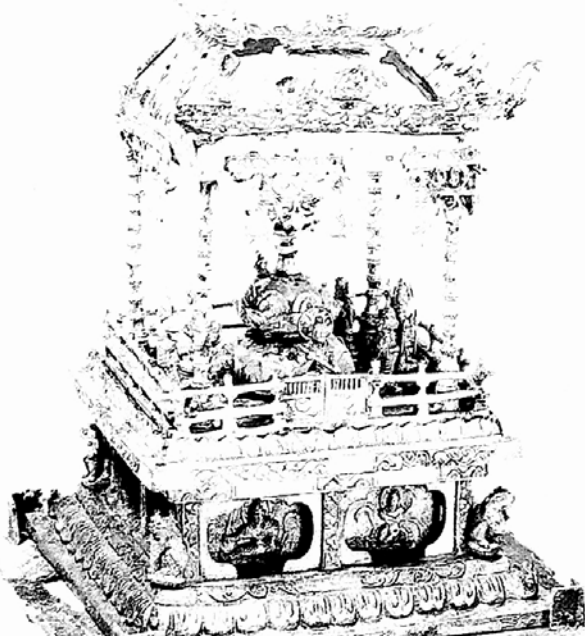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금생(今生)의 마지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회

다시없는 기회가 이제 15일 남았습니다



경주 감은사 동산총석탑 출토 금동진신사리

이번에 최초로 공개된 부처님 진신사리는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것입니다. 1,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 앞에 현신한 부처님 진신사리는 이제 친견법회가 끝나면 다시는 친견할 수 없습니다.

친견법회와 함께 시작되었던 사리장엄구 특별전은 8월 첫주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미처 동참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는 백중까지 계속되오니 금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 사찰과 신행단체의 불자들이 모두 함께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신 단체 신도들에게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담긴 기념 카드를 드립니다
※ 특별전 10만 번째 입장객에게는 본 박물관 평생무료입장권과 정성껏 마련한 특별 선물을 증정합니다

영축중림 통도사성보박물관



1,400여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금) ~ 8월 15일(월)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 오후 7시 (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예약안내 : 전화 055) 384-0010 (담당자 : 이승현)
- 인 원 : 30명 이상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약인원, 인솔스님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